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영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연준, 미 경제 낙관 ... 기존 부양책은 유지



▲ FED 건물 전경. 사진=shutterstock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유지, 채권 매입 등 기존 부양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전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0.00~0.25%의 체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월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FOMC 통화정책 성명을

통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채권 매입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일시적인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는 계속해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국제수익률은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2018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 2.6%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5년 물가상승률을 약 2.5%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1년 전만 해도 0.8% 미만이었다.

CNBC는 하지만 연준이 적어도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준 인사들은 앞으로 닥칠 물가상승은 공급망 문제가 가라앉으면 찾아갈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해왔다.

미, 소비 급증에 1분기 GDP성장률 6.4%



▲ 소비가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이 올 1분기에 6.4% 성장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백신 보급과 부양책 효과로 소비가 살아난 덕분이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6.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연율은 현재 분기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1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환산한 수치다.

미 경제는 작년 -3.5% 역성장해 2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46년(-11.6%)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 이미 4.3% 성장하는데 성공해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 1분기에 기록한 6.4% 성장률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1.5~2.0%)보다 훨씬 큰 폭이다. 저지 효과 덕을 봤던 작년 3분기(33.4%)를 제외하면 2003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작년 4분기에 2.3% 늘었던 소비가 올 1분기엔 10.7% 급증했던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상품 소비는 23.6% 급증했고 서비스 소비는 4.6% 늘었다.

2분기 전망 역시 밝다. CNBC와 무디스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분기엔 9.3%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지난달 통과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자산 가격 폭등 ... WSJ "거품 공포"

다양한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이 거품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가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최근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 증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각각 23번, 21번 신고점을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최근 급락 직전 사상 첫 6만달러 고지를 돌파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까지 폭등해 세계 각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자산이 이처럼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WSJ는 진단하며 과거 버블과의 '데자뷰'에 다수 투자자는 대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반면 상당수 투자자는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상담의 Charles Lee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집/ 커머셜/ 오피스/ 창고/ 비즈니스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LA HABRA - COMMERCIAL FOR LEASE
 SMALL RETAIL/ OFFICE SPACE
 A. 912 SQ.FT. [STREET FRONT OFFICE/RETAIL SPACE]
 B. 400 SQ.FT. [OFFICE SPACE]
 *MODIFY GROSS LEASE [NO NNN]
 *MOVE-IN READY
 *ONSITE PARKING
\$1.30 PER SQ.FT.

CYPRESS - 조용하고 안전한 가정집

\$899,000

5 BED + 3 BATHS 2,750 SQ.FT.
 6,000 SQ.FT. (LOT)CHARL
 *2 CAR GARAGE AND DRIVEWAY
 *CUL-DE-SAC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원이 아름다운집

Bellflower - Duplex

\$850,000

A. 2 BED + 1 BATH (1600 sq.ft. Estimate)
 Rent: \$2650 per month
 B. 1 BED + 1 BATH (500 sq.ft. Estimate)
 Rent: \$1200 per month
 *2 CAR GARAGE + DRIVE WAY
 *TENANT (MONTH TO MONTH LEASE)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입니다.

Fullerton - Luxury Live/Work Loft

SOLD \$600,000

SMALL RETAIL/ OFFICE SPACE FOR LEASE
 A. 912 SQ.FT. [STREET FRONT OFFICE/RETAIL SPACE]
 B. 400 SQ.FT. [OFFICE SPACE]
 *MODIFY GROSS LEASE [NO NNN]
 *MOVE-IN READY
 *ONSITE PARKING

FOR LEASE - BREA

LEASED \$3,500 per month

3 BEDS + 2.5 BATHS 1,993 sq.ft.
 3,370 sq.ft. LOT
 *조용하고 안전한 DETACHED 가정집
 *좋은 학군 *넓은 뒤마당

FULLERTON - Maison de Fleur

\$739,000

유명한 "Maison de Fleur" 단지
 1,720 SQ.FT.
 *높은 Ceiling, OPEN FLOOR PLAN
 넓은 BACKYARD
 *조용하고 안전한 단지 w/ Association Pool

SANTA ANA - 상업용 주거지

\$799,000

LIVE WORK / 상업용 주거지
 1,456 SQ.FT. 9,300 SQ.FT. (LOT)
 *새로 FULLY REMODEL한 집
 *10+ PARKING AND 2 CAR GARAGE
 *5 & 55 FWY
 *이건물 외 다른 상업용/INCOME UNIT 상담무로입니디.